

내담자의 비탄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기독교상담사의 지혜

홍성경*

국문초록

논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비탄은 부재하시는 분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을 나와 같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바라게 하는 하나의 통로임을 밝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독교상담사의 지혜는 비탄 가운데 있는 내담자를 수용하고 안전하게 담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담자의 비탄을 촉진함으로써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환기시키고 비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 땅에 만연한 죄로 인해 탄식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시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탄의 의미와 지향점을 알아보고 오늘날 일반상담 현장에서의 비탄의 처리 과정과 지향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일반상담과 구별되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비탄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경험되고 처리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비탄을 함께하는 기독교상담사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을 제언한다.

주제어: 비탄, 비탄하시는 하나님, 소망, 기독교상담사의 지혜, 여호와 경외

* 해리스상담센터 상담사

I. 여는 글

비탄(悲嘆)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함. 또는 그 탄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매우 슬픈 상태에서 그 슬픔으로 인해 한탄하며 내쉬는 숨을 뜻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슬픔을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분노, 두려움, 질투, 절망, 수치 등의 이차적인 감정의 형태로 경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분명 일상의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강렬한 것임에도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을 비탄으로 연결하는데 종종 실패한다. 상담의 장면에서도 큰 슬픔의 상황을 별일 아닌 것으로 축소시키거나 그 슬픔에 압도되어 차마 탄식조차 할 수 없는 내담자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알아차림이 안되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했을 때 번번이 수용 받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 등이 한몫한다고 할 수 있겠다.

논문에서는 상담의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비탄이 주는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큰 슬픔 속에서 탄식은 때로 대상이 없는 허공에 또는 벽에 대고 하는 신음 소리 정도로 이해되기도 하고, 실제로 신앙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홀로됨 가운데서 탄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아들이시자 이 땅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 따라서 비탄의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기독교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탄식과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지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비탄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구속주이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비탄을 매개로 한 이러한 경험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충분하다.

연구자는 기독교 상담에서 다루지는 그리스도인의 ‘비탄’의 정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말씀을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때, 본 연구는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비탄’이라는 정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고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리

스도인의 성화를 돕는 것에 기여하므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비탄과 관련하여 구약 신학의 관점이나 애도 상담과 관련하여 목회 상담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있지만,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비탄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기독교상담사의 지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사의 돌봄 사역을 위해 미약하지만 필수적인 과업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상담에서의 비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일반상담 현장에서의 비탄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담자의 비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소개한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구현된 비탄의 알아차림과 그 과정을 통해 비탄의 기독교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때 나의 비탄에 함께 비탄하시는 하나님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됨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비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상담사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비탄의 의미

논문에서는 비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의미를 제안하기 위하여 앞선 비탄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비탄에 이르게 하는 삶의 정황들과 함께 비탄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비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인 구약에서의 비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그 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탄을 알아보고자 상실과 고난을 다룬 일반상담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기독교 상담에서의 비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살펴본 비탄

구약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한편,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개인의 삶은 물론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자로서 수많은 개탄, 절망, 고통의 순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율기에서는 의인이라 칭함 받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탄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질병,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이 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탄식이다. 김병오(2008)는 그리스도인이 죄로 물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영혼의 기도라고 하였다. 하지만 비탄의 순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 속에서 나오는 비탄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학자 Claus Westermann(1994)는 그리스도인의 비탄에 대해 신학적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먼저 비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탄을 만가(挽歌: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노래,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 dirge)와 구슬픈 비탄(plaintive lament)을 구분하였다. 만가(dirge)와 구슬픈 비탄(plaintive lament)은 모두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며,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된다. 만가의 경우 죽음에 대한 발표, 통곡과 애도 의식에 참여하라는 소환, 생존자들에게 닥친 고통에 대한 묘사, 그리고 생존자들의 고통과 대조되는 희생자에 대한 찬사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구슬픈 비탄은 공동체에 닥친 재앙에 의한 공동체적인 비탄이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비탄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닥친 공동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탄은 항상 청원 기도로 끝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탄은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비탄은 궁극적으로 모든 재앙의 시작이자 해결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라는 것을 상기할 때, Claus Westermann의 발견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김병오(2008)는 이와 같은 Claus Westermann의 만가와 구슬픈 비탄의 구분에 동의하며 그의 책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 다윗의 애도를 만가의 좋은 예로써, 율기를 하나님을 향해 쓰라린 고통을 해소해달라는 부르짖는 구슬픈 비탄의 예로써 인용하였다.

이영미(2009: 23)는 구약의 얘가를 통해 비탄의 신학적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얘가는 해피엔딩을 쉽게 제시해주지 않고 오히려 탄식을 통해 현실을 고발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희망하도록 북돋우는 예언자적 영성

을 표출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Westermann이 제시한 비탄의 삼자적(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비탄의 기능에 관해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일레(2022)는 시편 가난한 자의 개인 탄원시의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면서 역시 개인 탄원, 원수 탄원, 하나님 탄원으로 삼중적 구조를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개인 탄원은 하나님은 물론 사회적 보호장치에서 버려진 상황에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비탄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해본다. 구약을 통해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비탄은 고난과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는 인간이 숨어계시는 혹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호소이자 간청이다. 이러한 비탄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절망과 상실의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간청하게 되는 한 마디로 이 땅과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연결은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비단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천상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논문에서 말하는 비탄 역시 만가와 구슬픈 비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정황과 탄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비탄임을 밝힌다.

2) 일반상담에서의 비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는 인본주의적 상담을 논문에서는 일반상담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일반상담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비탄(고통으로 인한 슬픔, 좌절, 낙심, 분노, 상실, 수치 등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상담에서의 비탄의 의미와 과정의 함의를 생각해 볼 것인데, 논문에서의 비탄은 만가와 구슬픈 비탄의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음에 기초하여 일반상담 현장에서 다루어진 사별을 포함한 인생의 고난 및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내담자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비탄의 의미와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임선영(2013)은 외상적 관계 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심각한 관계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 12명(9명 사별, 3명 이별)의 관계 상실 경험자들을 집중 면담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고통 부적응-문제 제기과 원망-초점변경 수용-새로운 의미발견-치유성장’이라는 비탄의 처리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

중 8명이 사별 이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가 그들의 새로운 의미발견에 기여했다는 결과도 함께 보고하였다. 윤운영과 유금란(2013)은 부모의 죽음과 이혼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학교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말하고 해소함을 물론 적절한 생활 지도를 받음으로써 아동 청소년기의 상실 경험에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정신병리로 연결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윤운영과 유금란(2018)은 청소년기의 상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상실로 인한 비탄의 처리와 현실에의 적응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물리적 환경이 비탄을 더 억압시키며 단절로 이끄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후천적으로 시각의 상실을 경험한 8명의 저시력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윤주애와 박승곤(2021)은 후천적 시각 상실은 부모의 상실보다 더 큰 고통으로 경험되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쉽사리 자신의 상황을 터놓을 수 없는 2차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상실을 경험한 동질 집단 안에서는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고 자기를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하였다.

김경아 외(2019)는 가족이 생존해 있으나 만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비탄은 자신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우울, 불안, 무기력으로 나타났다. 그는 심층 면접을 통해 이러한 비탄을 나눔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간헐 사고(그때-거기-그들)를 지금-여기로 통합, 확장되도록 돕고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 도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윤훈 외(2007)는 고령자의 상실(관계적 상실, 경제적 상실, 건강 상실, 사별 상실)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가족 및 사회적인 정서적 지원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상실을 경험한 고령자는 그들의 상실에서 비롯된 정서를 표현하고 그에 적절한 정서적 돌봄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고령자들이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보장을 강조하며 사회적 돌봄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선재와 안현의(2013)는 상실 경험을 한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상실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고통이 따르면서도 더 많은 심리적 적응이라는 유익과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의미 재구성

과 다소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치료의 회원재구성 대화를 통한 애도 상담의 효과를 연구한 고미영(2019)은 회원재구성 대화의 장점을 고통과 상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면에서 재연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회원재구성 대화의 맥락에서 부정적 감정의 재연과 토로는 이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동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정숙(2016)은 고통스럽지만 상담사와 함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수용하는 계슈탈트 치료를 애도 상담에 접목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그 연구에서 남편과 사별한 지 10개월 된 자발적인 내담자가 빈의자 기법을 통해 고통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함으로써 미해결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고 상담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상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의 상실과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감정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논문에서 살펴본 현장에서는 모두 고통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토로하는 과정이 있었다. Diana Fosha(2022)가 상담사와 내담자의 최적의 이자적 관계는 깊은 감정을 촉진하고 강렬한 감정을 견디게 해준다고 한 것처럼 상담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지지 속에서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대면하고 느끼며 나아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닫혀 있던 시야가 넓어지고 자신과 사건 그리고 고통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후의 삶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의 지향점은 현실에서의 적응과 대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Daniel J. Siegel(2009: 172-173)의 “감정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써 연결 혹은 연계라는 개념이며 감정적 경험은 통합의 역동적 변화를 수반한다”라는 감정에 대한 정의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기독교 상담과 일반상담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 기독교 상담이란 “성경에 바탕을 두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상담”을 말한다(이관직, 2016: 6). 반면 일반상담이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고유성과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상담을 의미한다. 즉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는 인간관이며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핵심을 영혼으로 보고, 일반상담은 인간의 핵심을 자기(self)로 본다(안경승, 2021). 일반상담에서 인간의 핵심을 자기로 본다는 것은 상담의 과정은 물론 상담의 결과에 해당하는 목표에서도 기독교 상담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탄’을 포함하여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는 일반상담의 목표는 그 정서를 통하여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삶을 해석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반상담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을 들 수

있다. 인간중심상담은 유기체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가치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노안영, 2011). '비탄'을 포함하는 정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주의적 접근에서는 내담자의 내적경험에 집중하여 정서를 변별함으로써 자기 경험으로 통합하도록 돕는다. 이때 치료자의 공감적인 조율이 내담자의 연약한 자기감을 강화하고 이는 내담자의 자기 진정 능력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Greenberg & Paivio, 1997).

또한 비탄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일반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치료 동맹은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 의식과 지지 그리고 적절한 심리교육으로 치료 과정에서 순기능을 한다(이동훈 외, 2016). 이정숙(2016)은 사별로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한 내담자의 비탄을 치료하기 위해 계슈탈트 개입을 시도한 애도 상담을 질적 연구하면서 치료자가 내담자의 비탄을 촉진하고 공감적으로 받아주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스스로 현실을 수용하며 재개념화한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애도 경험과 애도 상담의 동향을 연구한 남수현(2022)은 비탄을 다루는 애도 상담자들의 역할은 내담자들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고 위로받도록 도와야 하며 결국에는 고인이 없는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반상담에서 '비탄'이라는 정서는 현실에 대한 수용과 적응 그리고 주도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매개로 이해된다. 이런 이유로 일반상담에서도 '비탄'의 알아차림과 표현을 촉진한다. '비탄'이라는 정서를 알아차리기 위해 내담자의 안전감을 매우 중요시하고 내담자의 신체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려 깊은 공감으로 내담자의 내적경험을 돕는 일반상담은 매우 탁월하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을 신뢰한다는 기본 전제의 모순과 인간 외적인 소망을 제시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기독교 상담에서 구현되는 비탄의 과정과 하나님의 비탄 그리고 소망

지금까지 구약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비탄과 오늘날 일반상담 현장에서의 비탄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비탄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기독교 상담에서 촉진되는 비탄의 과정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고통과 슬픔 심지어 비극까지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게 만드셨다(Westberg, 1962).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견딜 수 있는 힘에 의지하여 고통과 슬픔으로 경험되는 비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Granger E. Westberg(1962)은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때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패닉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과정을 밟아갈 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상담의 역할 중 한 가지는 비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홀로 그 과정을 걸어가지 않도록 함께해주는 것이다. 내담자가 만나게 되는 비탄의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 개인을 전인적으로 공감하며 안전하게 품어주는 이자적 관계는 내담자의 일시적 마취나 방어적 태도를 해체하고 밀려오는 감정을 느끼며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Fosha, 2000).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상담은 때때로 서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비탄은 비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비탄의 이종고라 할 수 있다. 상실과 고통의 슬픔도 감당하기 벅겨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신정론적 질문 앞에 그 슬픔은 배가 된다. 이런 슬픔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비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차마 비탄의 존재조차 외면하고 싶게 만든다. 그렇기에 비탄하는 내담자에게 기독교 상담의 장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담자가 비탄을 비탄으로 인정하며 토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역시 비탄은 부인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도록 하는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Donald Capps(1981)는 그의 책에서 Walter Brueggemann의 목회 상담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는 비탄의 형식을 시편의 탄식시에 기초하여 6단계로 정리한 것을 잘 설명하였다. 목회 상담은 기독교 상담과 동일한 세계관과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기에 논문에서 말하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비탄의 과정을 그가 설명한 탄식시의 과정을 인용하여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며 소개한다. 그리고 목회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구별점이 되는 목회자와 기독교상담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Capps가 설명한 탄식시의 6단계는 '하나님께 호소 - 불평 - 신뢰의 고백 - 간구 - 확신의 고백 - 찬양의 선포'이다(Capps, 1981: 91).

기독교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위의 6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 호소'의 단계는 기독교 상담의 장면에서 시간적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그리스도인 내담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으로 쉽사리 비탄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한 자매는 구조화된 10회기의 종결 회기에 이르러서야 그 원망과 슬픔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아차리기도 하였다. 둘째, '불평'의 단계에서 기독교 상담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촉진자로 인해 내담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정서의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내담자의 불평에 정확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자기 타당화 하도록 돕는다.

셋째, '신뢰의 고백'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기독교상담사로부터 지지받고 비탄의 감정이 대체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의지할 곳 없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넷째, '간구'의 단계에서 내담자는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명료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다섯째, '확신의 고백'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안도감과 자신의 필요들이 지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때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가 털어놓는 이런 필요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내담자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다. 여섯째, '찬양의 선포' 단계에서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담자를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심으로 이 땅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회복시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Capps, 1981: 91).

2) 기독교 상담에서 만나게 되는 비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비탄'이라는 것은 매우 강렬한 감정 중 하나이다. 논문에서는 감정과 정서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지금까지 구약학자이든 실천신학자이든 일반 심리학자이든 간에 돌봄 현장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장에서 제시한 비탄의 과정 6단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첫 단추가 바로 비탄이라는 감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Leslie S. Greenberg와 Sandra C. Paivio(Greenberg & Paivio, 1997: 30)는

“정서는 정신적 기능을 조절하며 사고와 행위를 조직화한다”라고 하였고, 안경승(2022: 178)은 “감정은 이성이 지각하고 이해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 강하게 끌리거나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선택과 포기를 이끌어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감정은 한 개인이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험과 그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안경승, 2022).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비탄의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Nicholas Wolterstorff(1987)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자신이 느낀 비탄의 과정에 대해 쓴 글에서 처음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슬픔에 빠져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그 대답에 귀 기울이기를 애쓰는 동안 그는 할퀴고 찢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이후 그는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고통을 하나님은 자신이 고스란히 함께 느끼시면서 이 세상을 안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바로 고통 너머에는 이미 약속된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소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Federico G. Villanueva(2012)는 슬퍼하는 것은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 다(셀라)”(시 3:4)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슬픔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물과 맞닿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므로 우리의 슬픔과 눈물도 괜찮다고 하였다. Jonathan Edwards(1994: 211)는 “참된 성도는 영적이고도 신적인 일에 이 마음의 새로운 지각을 행사하여 무엇인가를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인이 그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참된 성도가 감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비탄하시는 하나님이며, 비탄이라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인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받으심으로써 고난을 정복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성취하신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

통이며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Allender & Longman III, 1994).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나 환상이 아니며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뜻하는 망상도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는 구원의 약속이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친히 임하셔서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타인이나 외부의 대상으로부터의 도움에 달려있지 않다(안경승, 2020).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절망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마치 우주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고립감”이다(Westberg, 1962: 21).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경험되는 “비탄은 두려움이 아님에도 두려움처럼 느껴져서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Lewis, 1962: 3).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비탄의 한복판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대면하고 몸소 느낄 때야 비로소 나보다 먼저 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발견하며 붙잡게 되는 것이다.

3. 기독교상담사의 지혜

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비탄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비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 너머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비탄이 이런 소망에 이르기까지는 혼자서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에 초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종종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마치 미숙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한다(안경승, 2022).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적잖이 보게 된다. 이들이 비탄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비탄 가운데서 함께 비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한 회복을 소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사가 바로 그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비탄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완전한 회복의 소망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상담사에게 특별한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성품과 은사를 동원하여 삶의 경험 속에서 분별력과 소신으로 행동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이웃과 사랑으로 소통함으로써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는 삶의 태도이자 방식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성(聖)과 속(俗)을 포함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는 것을 추구한다(안경승, 2013).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특별히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기독교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그 제목으로 여호와 경외, 정서적 유능성, 겸손을 제안한다.

1) 여호와 경외: 돌봄 사역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는 기독교상담사의 지혜

경외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어떤 존재 앞에 고개 숙이는 마음,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할 때를 알고 오직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경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깊어지게 한다. ‘여호와 경외’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해 ‘야훼’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언약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상담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음을 키워갈 때, 그 기독교상담사는 개인의 신앙이 깊어짐은 물론이고 돌봄 사역에 있어서 언약 관계에서의 구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돌봄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본질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안경승, 2013).

기독교상담사와 그리스도인 내담자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돌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세계관 안에서 모든 삶의 실재와 관계를 의도적으로 보게 하는 기준틀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MacArthur & Mack, 2005).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픈 갈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분별하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한다면 내담자의 이상승배를 주목해야 한다.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Dawn, 2006).

특별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큰 상실과 고난으로 인해 비탄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담자를 잘 품어주고 다독이며 비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비탄의 현장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 됨

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기독교상담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돌봄의 시간 동안 기독교상담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내담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의 인생은 창조된 무엇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세세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존재라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된다.

2) 정서적 유능성: 감정의 촉진자로서의 기독교상담사의 지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의 내면세계와 연결해준다”(Allender & Longman III, 1994: 21).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비탄'이라는 감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내면과 연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온전히 느끼기도 어려운 감정이다. Capps(2003)는 그의 책에서 시편 27, 37편을 예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치료적 과정의 첫 단계이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감정의 환기를 가져오는 동시에 긍정적 감정의 출현을 돕는다는 Wayne Oates의 의견에 동의하며 비탄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비탄의 감정을 잘 느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논문에서는 감정의 촉진이라고 표현하였다.

기독교상담사가 내담자의 비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상담사가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에서 자신의 비탄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면서 나의 비탄을 수용하시며 나와 함께 비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나의 소망임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비탄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Fosha(2000)는 자신의 정서를 잘 느낄 수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정서적 유능성이라고 하였으며, 치료 장면에서 정서적 유능성이 있는 상담사는 임상 현장에서 내담자의 안전감이 보장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담자로 하여금 정서를 느끼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최적의 기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목회 상담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기독교상담사의 구별 점이 바로 이 정서적 유능성이다.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는 말씀에 대해 기독교상담사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촉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서적 유능성과 관련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사는 안전 애착의 중

요성과 내담자의 정서를 가늠케 하는 수많은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들 그리고 정서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대하여 오랜 시간 수련받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더군다나 쓰디쓴 비탄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신정론적 질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반감 혹은 서운함과 실망감을 느끼는 내담자에게는 선부른 말씀의 권면보다는 내담자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그 비탄의 시간을 함께 견뎌줄 기독교상담자의 돌봄이 절실하다.

Gary M. Yontef(1988)은 심리적 어려움에 있어서 치료적 성공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지적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였다. 이 관계는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치료적 관계를 생각할 때, 치료사의 정서적 유능성은 내담자가 지금-여기에서의 안전함은 물론 자신이 온전히 수용됨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신체 증상 등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하였다. 차마 비탄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혹은 허공에 대고 비탄을 호소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상담사의 정서적 유능성이라는 지혜의 덕목이 반드시 발휘되어야만 하겠다.

3) 겸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기독교상담사의 지혜

Andrew Murray(1973)는 그의 책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커다란 동기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기독교상담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이고 성도이면서 돌봄 사역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제아무리 내담자의 비탄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고 낙심에 찬 내담자에게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설 작은 힘을 보태는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피조물이며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높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상담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의 하나인 기독교상담사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의무 아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해야 한다(MacArthur & Mack, 2005).

또한 논문에서 일관되게 다루는 내담자의 비탄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 상담이라는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겸손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비울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온전히 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안경승, 2013).

자기를 온전히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지만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나를 비울 수 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주셔서 성도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벽찬 감사임을 기억한다면, 나를 지체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돌봄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감사를 넘어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Henri J. M. Nouwen(1985)은 돌봄의 핵심 의미는 '애통하다, 함께 부르짖다,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돌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도 동일한 애통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과 나 또한 연약하고 힘없는 그리고 죄인의 한 사람임을 기억할 때, 나아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기독교상담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

III. 닫는 글

논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비탄이라는 감정이 기독교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탄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을 돕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상담사를 지명하셨다. 특별히 비탄이라는 감정으로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는 내담자를 소망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상담사에게 특별한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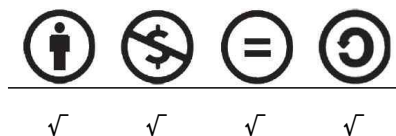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이 찢기시면서 자유, 건강, 새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심기어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소외, 단절, 고독, 외로움, 상실 등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과 맞닥뜨릴 때는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한다. Nouwen(1972)은 탈무드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

록 준비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돌봄 사역자 역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다. 기독교상담사는 고통받는 죄인인 동시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노안영(2011: 25)은 "상담사는 내담자의 안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논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내담자에게 초점 두었으므로 기독교상담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 하심을 돕는 조력자임을 늘 기억해야겠다.

논문이 가진 한계로는, 첫째 내담자의 범위를 그리스도인으로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사가 만나는 내담자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논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비탄에 대해 다루었기에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비탄의 의미를 알아볼 때, 성경적 관점과 일반 심리학의 관점을 비교하고 싶었으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 범위를 기독교 상담과 일반상담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논문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논문이 주장하는 기독교상담사의 세 가지 지혜 덕목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기독교상담사들의 임상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기독교 상담의 성장을 위하여 '여호와 경외, 정서적 유능성, 겸손'이라는 기독교상담사의 지혜의 덕목이 그리스도인 내담자와의 임상 현장에서 구현된 사례 중심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5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7월 08일



【참고문헌】

- 고미영 (2019). 이야기치료의 애도 상담에 대한 사례 연구: 회원재구성대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3), 727-747. <http://dx.doi.org/10.24159/joec.2019.25.3.727>
- 김경아, 장혜인, 전진용, 홍진표 (2019).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699-735. <http://dx.doi.org/10.22257/kjp.2019.12.38.4.699>
- 김병오 (2008). **영혼과 우울증**. 서울: 도서출판 대서.
- 김후경, 오주석, 이순철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1-15. UCI: G704-000654.2007.13.2.005
- 남수현 (2022). 애도 경험 및 애도 상담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11~2020년 중심으로. **교육연구**, 10(2), 7-27.
- 노안영 (2011). **상담자의 지혜**. 서울: (주)학지사.
- 안경승 (2013). **지혜로운 돌봄**. 양평: 아신대학교.
- 안경승 (2016). 기독교상담과정의 독특성. **복음과 상담**, 24(1), 221-253. <http://dx.doi.org/10.17841/jocag.2014.24.2.221>
- 안경승 (2021). 자기중심의 인간이해에서 영혼을 복원하기. **복음과 상담**, 29(2), 163-195. <http://dx.doi.org/10.17841/jocag.2021.29.2.163/1>
- 안경승 (2022). 감정기능의 이해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30(3), 175-199. <http://dx.doi.org/10.17841/jocag.2022.30.3.175>
- 윤운영, 유금란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학교상담의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41-262. <http://dx.doi.org/10.16983/kjsp.2013.10.1.241>
- 윤운영, 유금란 (2018). 청소년기 상실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5(3), 479-501.
- 윤주애, 박승곤 (2021). 중도시각장애노인의 상실 및 삶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3(53), 63-90. <http://dx.doi.org/10.22779/kadw.2021.53.53.63>
- 이관직 (2016).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 경기도: 지혜와 사랑.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자의 보고(report)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

- 반, 35(1), 89-120. <http://dx.doi.org/10.22257/kjp.2016.03.35.1.89>
- 이영미 (2009). 예언적 영성으로서의 탄식: 애가의 탄식과 구원신학. **구약논단**, 15(4), 10-29. <http://dx.doi.org/10.24333/jkots.2009.15.4.10>
- 이일레 (2020).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 연구. **성경원문연구**, 50, 37-59. <http://dx.doi.org/10.28977/jbtr.2022.4.50.37>
- 이정숙 (2016). 계슈탈트 애도 상담에 나타난 발전적 사건의 사례 연구. **질적연구**, 17(2), 111-121. <http://dx.doi.org/10.22284/qr.2016.17.2.111>
- 임선영 (2013).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45-772. UCI: G704-000523.2013.25.4.003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http://dx.doi.org/10.15703/kjc.14.1.201302.323>
- Allender, D., & Longman III, T. **감정, 영혼의 외침**(안정임 역, *The cry of the soul*). 서울: IVP. (원전 1994 출판).
- Capps, D. (2003).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 Dawn, M. J. (2007). **우물 밖에서 찾은 분별의 지혜**(홍종락 역, *Joy in divine wisdom*). 서울: Ivp. (원전 2006 출판).
- Edwards, J. (2009). **신앙과 정서**(서문강 역, *The religious affections*).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4 출판).
- Fosha, D., Siegel, D. J., & Solomon, M. F. (2013). **감정의 치유력**(노경선, 김건종 역,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경기도: NUN. (원전 2009 출판).
- Fosha, D. (2022). **속성경험적 역동심리치료 AEDP**(전명희 외 역, *The transforming power of affect*). 서울: 학지사. (원전 2000 출판).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흥표 역,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1997 출판).
- Lewis, C. S. (1962). *A grief observed*. New York: HarperCollins.
- MacArthur, J., & Mack, W. A. (2010). **상담론**(안경승 역, *How to counsel biblically*). 서울: 부흥과개혁사. (원전 2005 출판).
- Murray, A. (2007). **겸손**(채대광 역, *Humility*). 서울: 좋은씨앗. (원전 1973 출판).

- Nouwen, H. J. M. (2005). **상처입은 치유자**(최원준 역, *The wounded healer*). 서울: 두란노 (원전 1972 출판).
- Nouwen, H. J. M. (2014). **돌봄의 영성**(윤종석 역, *A spirituality of caregiving*). 서울: 두란노 (원전 1985 출판).
- Villanueva, F. G. (2012). *It's' Ok to be not Ok*. Manila: OMF Literature Inc.
- Westberg, G. E. (1962). *Good grief: A companion for every loss*. Rock Island, IL: Augustana press.
- Westermann, C. (1994). *Lamentations: Issues and interpretation*.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 Wolterstorff, N. (2003).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박혜경 역, *Lament for a son*). 서울: 좋은 씨앗. (원전 1987 출판).
- Yontef, G. M. (2008). **알아차림, 대화 그리고 과정**(김정규, 김영주, 심정아 역, *Awareness dialogue & process*). 서울: ㈜학지사. (원전 1988 출판).

[Abstract]

The Wisdom of Christian Counselors Leading the Client's Grief to God's Hope

Hong, Seong Kyoung*

This thesis reveals that grief is an opportunity for Christians to meet God, who is experienced as an absent person, as a God who groans with me, and furthermore, it is a channel to exalt God's being as God and hope for hope from God. In this process, the wisdom of a Christian counselor who fears Jehovah not only accepts and safely contains the client in grief, but also promotes the client's grief, thereby arousing the client's negative emotions and helping the client to recognize God as the object of grief. . Also, God who groans for the prevalent sins on this ear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sent by that God after the crucifixion are the promise of restoration that has already been fulfilled to those who are united to Christ. Therefore, in this thesis, first of all,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grief of the Israelites in the journey of salvation the people of Israel, chosen by God, will be discussed, and the process and direction of grief in general counseling today will be discussed . In addition, we look at how grief in Christian counseling,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counseling, should be experienced and handled with what orientation. Finally, I suggest the virtues of wisdom necessary for Christian counselors who share the grief of Christians.

Key words: lament, grieving God, hope, Christian counselor's wisdom,
the fear of Jehovah

* Haleas Counseling Center / Counselor